

# 종교는 '행복하라' 가르치는데, 대중은 '글세'?

## 轉迷開悟 미망에서 나와 깨달음을 얻다

2014 희망 사자성어로 대학교수들 '전미개오' 선정

문체부 한국인 의식 조사 결과 한국인, 종교 중요도 매우 저조 10점 중 5.7점... 만족도는 높아

물신화·종교 청렴성 실망 이유 종교 바른 믿기 방안 고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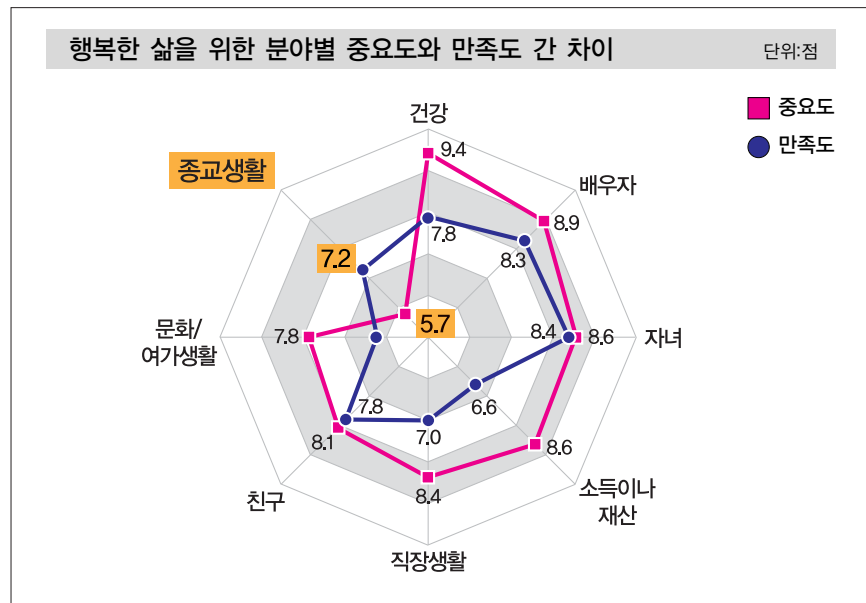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종교가 가지는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홍, 이하 문체부)가 구랍 18일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가 한국리서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행복을 위한 기대 조건 가운데 종교를 가장 하위에 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건강으로 10점 만점에 9.4점이었었다. 다음은 배우자(8.9점), 자녀(8.6점), 소득이나 재산(8.6점), 직장생활(8.4점), 친구(8.1점), 문화/여가생활(7.8점) 순이었다. 종교생활에 대한 중요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 많은 기대



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종교가 사회 치유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42.7%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으며,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10% 달했다.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도 5.4% 정도였으며, 종교 단체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6.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물신화로 가고 있는 사회에

서 범계행위, 교회 세습 등 종교도 세속과 다르지 않음을 종교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종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도덕성과 청렴성 등으로 조사된 만큼 종교 본연의 자제를 지켜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제 만족 지수가 낮은 점이다. 문체부의 한국인 의식조사에서 분야별로 실제 얼마나 만족하는지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자녀(8.4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8.3점), 친구(7.8점), 건강(7.8점), 종교 생활(7.2점), 직장 생활(7.0점) 등의 순이었다. 다른 조건들은 중요도와 만족도에 괴리가 있었지만, 종교 생활은 시작했을 경우 만족도 높게 나온 것이다.

법안 스님은 "종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적 가치를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바른 믿음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말한 응답이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발전'(8.6점), '기회균등 및 공정성의 확보'(8.5점), '윗사람에 대한 존중'(8.5점), '사회집단 간 소통'(8.5점) 등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통 가치로 제시됐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조사는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오차는 ±2.9%p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총 12종으로 'UP'

〈동아시아불교문화〉 승격, 매년 1회씩 등재지 선정

불교계 대표적인 학술지인 〈동아시아불교문화〉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인터넷 공식홈페이지(www.nrf.go.kr)를 통해 2013년도 학술지 계속 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동아시아불교문화〉를 비롯해 총 12종이 등재지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학계 등재학술지로는 〈불교학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9년 등재),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2007년 등재),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2006년 등재), 〈강좌미술사〉(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년 등재), 〈보조사상〉(보조사상연구원, 2006년 등재), 〈인도철학〉(인도철학회, 2008년 등재),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2010년 등재),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11년 등재), 〈불교연구〉(한국불교연구원, 2011년 등재) 등 12종에 유관 등재지 포함 15종으로 늘어났다. 또 등재후보지

로는 〈정토학연구〉(한국정토학회), 〈불교미술사학〉(불교미술사학회), 〈신라문화〉(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등 3곳이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5년 한국불교미술사학회의 〈강좌미술사〉 등재 이후 매년 1종 이상 등재되고 있다. 등재후보지가 등재지로 승격되려면 게재된 논문과 학술지

**불교계 유관 단체 포함 15종  
계재논문 수 연구업적에 반영  
"세계화로 질적 향상 노려야"**

의 내용성과 체계성을 평가하는 심사서 2년 연속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등재지에 선정되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저명학술지로 분류돼 학술지의 위상이 높아진다. 특히 이곳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등재지,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로 나뉜다.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그 논문이 평가되고 이는 연구업적 점수로서 교수임용 또는 업적평가 때 기준점수로 활용된다. 때문에 어떠한 학술지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는 연구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학술지의 등급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목록에 등재돼 있으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술지 등재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도

가능해 왔다. 박문형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회장은 "오랜 기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등재지 선정은 계기로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소장학자의 연구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회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겠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과제 또한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2014년 1년 동안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인쇄비 등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경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곳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불교학연구원 〈불교학연구〉,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등 4종이다.

하지만 이러한 쾌거에서 등재지 제도 변화에 앞둔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1년 12월 정부는 기존 학술지 등재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하고 학계 자율평가체제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기존 학술지 등재제도가 국내학술지의 과도한 양적팽창을 불러오고, 학술지 관리에서도 질보다는 양과 형식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존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말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등재제도를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회장(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편집위원장)은 "학술지가 양적인 팽창 외에 수준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학자들간 인용을 늘리는 등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라며 "불교학계도 세계기판과의 연계활동 등 다양한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日 불교계, 아베 총리 신사 참배 강력 항의

이치노헤 스님, 자신 블로그에 소개

구랍 26일 강행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이 유감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불교계에서도 비판과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침략 참회기〉의 저자인 조동종 운소지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사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 불교계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불교자의 눈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소속 종파 조동종에 참배 항의 성명을 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노헤 스님의 블로그에 의하면 일본 진종교단연합은 보트기 도슈(佛木 道宗) 종무장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진종교단연합은 "이번 참배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참배에 대해서도 계속되어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기독교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저지 그리스도 그룹의 위원장 우라베(浦



瀬)도 "일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 한국 등 아시아제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치노헤 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강행을 비판했다. 스님은 "2014년을 맞이하며"라는 글에서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수"라면서 "야스쿠니 숭배는 조상에 대한 애착, 즉 가족주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비정상적 가족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2014년 일본불교는 아베의 가족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 사회에 진정한 불교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 전통과 새로운 문화기 실이 숨쉬는 원력의 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자격 : 1. 2014년 봄 수계자까지 가능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팔기도구
- 모집기간 : 2014년 1월 4일(음력 12월 4일)~2013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14년 1월 20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통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3년도 봄 수계에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 00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주 홍륜 · 주지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